“노숙인 취업과 환경문제 동시에 해결”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서울 용산역 부근의 두바퀴희망자전거협동조합은 버려진 자전거의 단순 재생(왼쪽)에서 나아가 자전거 부품을 활용해 조명기구 등을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오른쪽) 사업으로 노숙인들의 자활을 이끌고 있다. 김연설 이사장(좌측 사진 왼쪽)이 직원들과 함께했다.

김연설(43) 씨는 2010년 서울역 노숙인이 됐다. 처음부터 노숙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듯 그 또한 약 10여 년 동안 번듯한 직장인이었다. 20대에 결혼해 딸도 한 명 낳았다. 우울증이었을까, 언젠가부터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실제로 세 번 자살을 시도했다. 2001년 아내가 딸을 데리고 그의 곁을 떠났다. 2009년에는 직장도 그만두고 동굴 같은 쪽방에 파묻혀 지내다가 서울역으로 나와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노숙인이 된 뒤 그는 약으로도 치료 못하던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자신보다 더 힘들고 아픈 ‘서울역 사람들’과의 관계맺기와 이야기 들어주기를 통해 역설적으로 삶의 의욕을 찾았다. 2013년 ‘두바퀴희망자전거’(두바퀴)에 합류한 그는 이내 운영팀장을 맡았고, 지난 5월 법인사업자(사회적기업 두바퀴희망자전거협동조합)로 조직이 변경된 뒤 이사장에 추대됐다.

두바퀴는 2006년 여재훈 성공회 신부와 이형운 사회복지사를 주축으로 설립됐다. 버려진 자전거 재생사업(Recycling)을 통한 노숙인 자립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버려진 자전거를 고쳐서 파는 사업은 수익성이 없었다. 아무리 팔아도 부품비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다.

두바퀴는 버려진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원래 모습과는 다른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에 눈을 돌렸다. 자전거의 프레임과 체인, 톱니바퀴 등을 재활용해 조명기구와 책꽂이, 필통 등을 만든 것이다.

방치된 자전거를 재생하는 사회적 기업이 전국에 7곳 있었지만, 지금은 두바퀴만 남은 데는 이런 발상의 전환 덕이 크다. 두바퀴의 현재 직원은 31명으로 사회복지사와 회계, 외부사업담당자 외에는 노숙인 출신이 생산과 서비스, 배송 등을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아산재단이 우리를 작년과 금년 2년 연속 ‘취약계층 자립 프로그램’에 선정해주어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우리는 수작업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물량이 적고 가격도 싸지 않다. 우리 제품을 사면 폐자전거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두바퀴의 제품은 온라인(www.2bike.co.kr)을 통해 주문받고 판매한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1977년부터 4,200여 사회복지단체에 407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